

“사도 바울의 신앙”

빌립보서 3:10-14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운동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4)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혈통과 학벌을 가졌고 랍비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 3:4-5)

바울은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세상적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9)

그의 가장 큰 관심이 세상적 성공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목표로 삼게 되었을까요?

첫째,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

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린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단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고, 사업도 잘 되며, 어려움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는 평안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목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2)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것도, 또 얻은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직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서라고 하면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위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직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나 ‘정상’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하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우리는 예수께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만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해도 안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즉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3-14)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의 것'이란 자랑스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과거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거는 우리를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과거에 잘했던 모습들은 교만과 헛된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은 그것으로 인해 내 자신을 스스로 병들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과거의 짐을 쉽사리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롬 5:21)

종에 대한 책임과 짐은 주인이 짊어 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면, 우리의 짐은 우리의 주인되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즉 사명은 모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도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신 그 '꾀대'를 향해 후회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 목자로, 찬양대로, 교사로, 집사로, 장로나 권사로 -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뒤를 돌아볼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생긴 목표가 두개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한 사람인가요?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3. 모든 사람에게는 달려가야 할 '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 '꾀대'는 어디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